



구덩이에서 뒷걸음쳐 나오기: 몇 편의 시

나는 나의 주의력을 일깨우기 위해, 언어와 맺은 관계를 새로이 하기 위해,
그리고 N. 스콧 모마데이의 말을 빌리면 “정신에 솔직함을 되돌려놓기” 위해 쓴다.

감각 기억

세계는 젖어 있고, 나무들은 소리를 똑똑 떨군다.
아니면 그날은 고요했던가,
내가 길을 걸어 막대기들의 합창 속으로
들어선 그날은? 맨눈만,
쩍 벌어진 두 귀의 나선만,
의도라곤 비어 있는 비옷 주머니만 지닌 채.
떨어지는 생명의 냄새가 내 얼굴을 연다.
아니면 그저 내 머릿속 구멍들을 채웠을 뿐인가,
인간의 냄새를 더럽히는
쓰레기의 불길을 질식시키면서?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거기 있었다,
13년 주기의 그 출현을 보려고.
텅 빈 형상들이 말없는 줄기를 장식하고
가장 가느다란 잔가지에 매달린다, 긴 잠의 잔해,
가는 선으로 허공에 스케치된 채.
나는 곤충이라 적히는 세부에 이끌린다,
마지막 탈피가 남긴 빈 구멍 둘레로,
나무 우듬지를 차지한 살아 있는 내용물이
쪼개고 나간 그 자리, 거기서
울고, 짹짹, 죽으리라.
내 손가락이 그 골격들을 더듬어,
굳은 유령을 온전히 남기려 조심스레 떼어낸다.



아니면 내가 햇대에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핵 잡아챘던가?
 무심한 충동으로 주머니를 채우면서,
 평소 내 눈을 벗어나는 것, 그 하찮은 벌레,
 숲 전체를 인간의 귀로 밀어 넣는 그 벌레를.

유예된 결과가 곧 당도한다

그저 여느 날이었다
 석탄에 저주받은 땅 위로
 먼지구름의 행렬이
 숲 우거진 산을 놀라게 했다
 연기가 걷히자
 산은 사라지고 없었다
 소리 없는 드라마
 사무실로부터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드론 조종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그리고 플라스틱 컵,
 재활용되지 않으리란 걸 우리도 알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넣었다
 이제 올바른 쓰레기통에
 이제 고래의 큰 집 안에
 이제 바다거북 속에
 이제 잘게 부서져 흩리며
 알바트로스 속에
 뱃사람의 미신은
 알바트로스를 죽이면
 불길하다고 여겼다
 실은 선원들이 그것들을 술하게 죽이고 잡아먹었다
 이 새들의 역동적인 활공은
 공학자들에게, 특히
 드론과 무인 항공기 설계에
 영감을 준다
 어릴 적 나는 영화를 한 편 봤다
 악당은 잘 먹어 살진 왕이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웃던 왕.
 영웅이 그의 비단 가슴팍에
 칼을 꽂았을 때
 그는 그저 웃었다



그의 심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그가 제멋대로 풀려나
 난동을 부리는 동안에도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겁에 질린 갓난아기처럼
 홀로 발가벗은 채
 유리 상자 안
 탑 속
 마법으로
 보호받으며



평화시

우주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다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가까운 이웃들은 조심스레 멈춰 서서
 우리의 수치에 귀를 납작 눕히지 않는다.
 우주에서 웅졸함은 그들을 드리우지 못한다
 곡선을 그리는 달 위로,
 차가운 별들은 더더욱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숲에서는 잎들이 몸서리친다
 모진 말에 부딪힐 때.
 자라나는 것들의 생기는 멈칫하고
 더듬거리며, 적의 어린 말투가 일으킨 돌풍 속에 몰려선다.
 그러니 물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몸은 흘림체처럼 흐르고
 가시 돋친 말도 우리의 돌고래 살갓을 뚫지 못한다.
 날카로운 말 조각은 느리고 음소거된 거품이 되어 입에서 빠져나간다.
 우리는 번갈아 파도가 되고
 그 위에서 춤추는 둥실한 것이 될 수 있다.

시골의 황혼

— 애슐리 헨트의 〈가시성의 정도(Degrees of Visibility)〉에 부쳐

풍경이 스러져 간다
 겨울밤 속으로, 온통
 덩불과 막대기,
 가물거림과 그림자뿐.
 무언가가 그늘들을
 하나의 형상으로 모은다
 사슴의 빛깔을 띠,
 거기서 사라져 가는.
 나는 객관주의자이자 생기론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나는 어스레한 빗금으로 그어진 언덕들을 본다,
 통계처럼 잿빛이고, 제복처럼 황갈색이며,
 녹슨 배관처럼 갈색인.
 이 색조들이 언덕 뒤의 망령들과 뒤섞인다,
 감옥이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 언덕.



텔레파시란 멀리서 느끼는 것.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
 몸을 숨긴 채, 사슴들은
 윤곽을 바꿔 가며 오고 간다.
 감옥 폐지론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감금의 폭력을 우리 문제들의 매듭, 그 전체와 잇는
 멀리 내다보는 그 연결이다.
 감옥 폐지론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높이 매달린 빛,
 어두워지는 풍경을 밝히는,
 꺼지지 않고 머무는 빛,
 머물고 또 머무는 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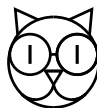
경제가 납작 드러눕는다

오늘은, 여기 아래가 좋다
 납작하게 있는 게 좋다,
 포장도로 위에 반듯이 누워
 마음이 떠도는 이곳.
 물기 어린 산들바람이 내 덩어리를 가로지르며
 지도 위에 화살표를 그린다.
 상승기류가 내 귀를 들어올린다:
 바퀴들, 젖은 발들, 갈라진 틈의 잡초.
 내 마음의 눈에 낀 무드링(mood ring)이
 붉게 타오르지만, 그저
 햇빛이 들어오려는 것뿐.
 내가 노숙자라면 여름 더위에
 공공 수영장에 와서
 물집 잡힌 내 대륙을 식혔으리라. 하지만
 나는 노숙자가 아니다. 나는
 젖은 콘크리트에 납작 눕고자 온다,
 이른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느낌으로:
 정신건강의 상투어.
 부채 위기는 생태적 재앙이다.
 땀을 바닥돌에 댄 채, 드러누운 살덩이,
 미래로 앞드린, 우리의 집.



저자 소개

클레어 펜테코스트는 예술가이자 작가로, 우리 행성의 임계 영역 (critical zone)에 생기를 불어넣는 통합된 다차원적 존재, 그 살아 있는 물질들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 펜테코스트의 작업은 리서치에 이끌리고 형식에 관한 물음에서 영감을 얻는다. 파트너 브라이언 홈즈와 함께 시카고에서 실험적 문화 공간 워터셰드 아트 앤 에콜로지(Watershed Art & Ecology)를 운영한다.



Wild Papers 편집자: 앙고 니어만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6, Claire Pentecost, Eva Fà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